

# 광주 '2045 탄소 중립도시' 첫 걸음 댄다

###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화정 2동 어린이집 등 3곳 18억 투입...에너지 성능 개선

광주시가 '2045년 탄소 중립 도시 달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 사업에 국공립 어린이집 2곳, 보건소 3곳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광주형 그린 뉴딜 종합계획은 광주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대 대비 45% 감축하고 2045년에 탄소중립 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IDEA(인프라-데이터-환경 시찰-인공지능)를 기반으로 시민 모두가 녹색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녹색 전

환도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화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기후 안심도시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시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소외받는 일 자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녹색산업도시 등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김중호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 뉴딜의 핵심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시설물·사용환경 개선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면서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국공립 어린이집 28곳, 보건소 10곳, 공공의료시설 4곳 등도 내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5개 자치구와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중호우 상황 점검회의 문제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김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그린 뉴딜 사업에 포함된 그린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상 지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공공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낡은 건축물의 에너지, 생활 환경, 신기술 시스템, 미관 등을 신축 건축물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광주에서는 화정2동 어린이집, 효사랑하나 어린이집, 서창보건진료소, 구소보건소, 화장보건소에 국비 12억7800만원 등 모두 18억2500만원이 투입된다.

고성능 단열·창호·설비 개선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환기시스템을 교체해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한다.

건축물 내 에너지 관리 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개선하는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등의 IT 인프라도 구축한다.

2045년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을 선언한 광주시는 이 사업이 광주형 그린 뉴딜 종합계획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 광주시 공공건축 설계 공모 공정성 강화·참여 기회 확대

### 선진화 방안 마련...설계비 범위 넓히고 도면 간소화 등

광주시는 공공 건축 설계 공모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공정성을 강화한 '설계 공모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설계 공모 대상을 늘리고 응모자 비용 부담을 줄여 지역 업체 등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광주시는 설계비 1억원 이상인 설계 공모 의무 대상 사업 범위를 5000만원 이하로 축소하고, 공모 대상 사업 범위를 5000만원 이하로 축소했다.

설계 공모 대상을 늘리고 응모자 비용 부담을 줄여 지역 업체 등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광주시는 설계비 1억원 이상인 설계 공모 의무 대상 사업 범위를 5000만원 이하로 축소하고, 공모 대상 사업 범위를 5000만원 이하로 축소했다.

설계 공모 대상을 늘리고 응모자 비용 부담을 줄여 지역 업체 등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심사 전 과정은 녹화 또는 녹음하고 필요할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 채점표, 사유서 등 심사 결과도 위원 실명과 함께 공개한다.

사업 규모와 특성에 맞게 발주 부서에서 구조, 시공 등 기술 분야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건축 설계 분야 전문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건축사 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학회, 공공 건축가 등과 협의해 대책을 내놓았다.

김재식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건축가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며 "품격있고 디자인이 우수한 광주다운 공공 건축물이 조성되도록 공모 과정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코로나 전담' 순천·강진의료원에 10억 지원

전남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순천·강진의료원에 각 5억 원씩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순천·강진의료원은 지난 2월 6일 전남도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강화된 감염관리를 통한 확진 환자 치료와 응급실 운영 등 공공의료기관 기능을 도맡아 왔다.

두 의료원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외래진료를 전면 중단하고 일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면서 의료수익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5월부터 병상 조정을 통해 입원환자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으로 주민들의 진료 기피가 계속돼 지난해 대비 외래 환자수가 30% 감소

하고 입원환자는 50%이상 감소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병상 손실 보상금을 3회에 걸쳐 순천의료원에 30억 2000만원, 강진의료원에 18억3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으나, 의료원 운영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경영안정자금 10억 원을 마련해 지원에 나섰으며, 이를 직원 급여를 비롯 약품·재료비 등에 우선 소모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힘쓰고 있는 의료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의료원도 이미지 쇄신과 경영혁신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재해위험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전남도는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급경사지·저수지 붕괴와 산사태, 저지대 침수 등 재해 위험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비 49억원을 포함해 모두 98억원을 투입해 태풍, 호우 등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도내 25개소에 우선 시스템을 구축하

게 된다. 사업대상지는 시·군에서 권의받은 재해위험지구 11개소와 위험저수지 8개소, 급경사지 6개소 등 인명피해가 우려된 지역이 우선 선정됐다.

위험지역에는 수위계와 변위계측기, 우량계, CCTV 등 각종 재해 관측 설비가 설치된다.

각 장비들에 기존 이상의 정황이 감지되면 사물인터넷(IoT)과 연결된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되고 경보알람(휴대폰 알람, 마을 방송, 전광판 표출)을 통해 주민들이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광주 상생카드 연말까지 할인

광주시는 애초 이달 말까지였던 광주 상생카드 10% 특별할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 등이 고려됐다.

카드 발행목표액도 4000억원에서 중앙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6100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연간 발행액은 863억원이었다.

지난달까지 5245억원이 발행된 광주 상생카드의 지역 내 소비로 자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남도장터'서 캠핑 먹거리 할인받아요

### 10~31일 특판 행사...내일까지 참여업체 모집



전남도의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코로나19로 비대면 휴가를 즐기려는 30~40대 캠핑족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캠핑용 먹거리 온라인 특판 행사를 추진한다.

전남도는 최근 비대면 시대 새로운 휴가 트렌드로 캠핑과 차박(차에서 숙박)을 해결 하는 것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남도장터에 '캠핑 먹거리' 코너를 신설하고, '캠핑 식품 꾸러미' 등을 입점시켜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특판에 들어간다.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할인쿠폰이 발급되며 택배비도 무료로 제공된다.

남도장터는 캠핑 먹거리 판매 희망업체를 모집 중이다. 참여를 희망한 도내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자는 오는 6일까지 시군을 통해 입점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캠핑아웃도어진흥원이 밝힌 올 1분기 캠핑인구가 지난해 대비 10%, 소비활동은 30% 이상 늘어났다"며 "전남도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축산물로 만든 밀키트, HMR 등 캠핑 먹거리를 발굴해 신수요 시장을 적극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도장터는 6월말 기준으로 도내 소재 907개 업체가 입점해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8535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회원 수는 25만명으로 올해 판매실적이 우수한 매출액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당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교통사고 잦은 14곳 개선공사

신창IC사거리 차로조정 등 이 포함됐다.

남구에서는 월산동 월산사거리, 송하동 전남혈액원 입구 삼거리 등 2곳이며 북구는 양산동 코카콜라 사거리와 신안동 용봉 휴먼시아 아파트 앞~전남대 정문 앞 등 2곳이다.

광산구에서는 신창동 신창IC 사거리, 우산동 광주여대 입구 사거리, 산월동 첨단 부영 1차 정문 사거리, 하남동 흙플러스 앞 사거리, 신촌동 신촌삼거리, 도전동 쌍용자동차 전시장~수완교하부도로 등 6곳이 선정됐다. /최권일 기자 cki@

광주시는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 14곳에 대해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와 함께 인명 피해를 기준으로 한 곳에서 연간 5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 한 다발 지점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서구의 경우 치평동 옛 이마트 앞 사거리, 상무 롯데마트 앞 사거리, 상무시민공원 앞 사거리, 마륙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역 삼거리 등 4곳

회전목마 인생  
이기원 수필집

##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평범한 사람의 **사회생활** 이야기

서점 판매 | 광주(충장서림, 삼복서점, 초원서점), 순천(중앙서점), 여수(대양서림), 전주(웅진서적, 민중서관, 흥지서림)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에스24, 알라딘, 영풍문고(배송료 무료)